

금년도 미국 각대학의
일화 절차는 모두 끝났다.

예년과 마찬가지로 아이
비리그등 일류대학 일주록
적성지 험성적 지도자 다운
자질, 예체능특기 등을 종
합검토하여 좋은 학생을 확
보한다. 하버드대학의 경
우에도 금년에 전국 고통
학교에서 지원한 최우수
학생들 1만 2천 5백여명
중 약 2천명에게 입학허
가서가 발송되었다.

이를 2천명의 행운
중에서 가정형편 장학금
사정 기타 이유로 약 4백
명의 양이 태교로 가고 결
국 이 학교 정원에 균접하
는 1천 6백 명정도가 실
제로 학부과정에 입학하
는 것이 관례이다. 이러한
통계적 추세는 아이비리

예년과 마찬가지로 아이
비리그등 일류대학 일주록
적성지 험성적 지도자 다운
자질, 예체능특기 등을 종
합검토하여 좋은 학생을 확
보한다. 하버드대학의 경
우에도 금년에 전국 고통
학교에서 지원한 최우수
학생들 1만 2천 5백여명
중 약 2천명에게 입학허
가서가 발송되었다.

인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
다. 물론 일류종합대학교
들은 비교적 영향이 적으
나 속유모의 전통 있는 유
원이 대학에서 쫓겨난 경
우가 많다. 이같은 현상
도가 줄리어드로모여 들어
온 해를 거듭 할수록 심화
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
그것도 한국 학생이 가장



美대학도 줄 한국인

宋相現

(서울法大 교수)

여러곳에서 입학허가를 받
은 후 학대학을 선택하게
된다. 그린데 일반적
경향을 보면 해를 거듭 할
수록 대학취학연령해답자
가 감소하는 미국의 인구
패턴 때문에 대학에 따라
서는 지원자가 점점 미달

되는 만큼 좋은 대학부터
되며 학대학인들은 미국
우수한 학생으로 정원이
확보되게 마련이다. 따라
서 미국 각대학의 입학사
무 담당자들은 지원자를 확
보하기 위하여 빼집나게
아카데미와 같은 고풍학

대학마다 비상이 걸렸다.
다면 학대학인들은 미국
의 일류대학에 자식을 입
학시키기 위하여 고등학
교부터 미국의 일류학교
에 보내기 때문에 필립스
스쿨 하나의 국제무역상
교에는 수업료가 굉장히
비쌈에 노동하고 학대학
미국 유학문호가 그만큼 넓
게는 참으로 암성맞춤일
것이다.

우리가 우리 자체들의
미국 유학문호가 그만큼 넓
고만 있을 흐 있을까? 그
리고 정부의 무정착한 유
학정책, 담사자들의 무지
하고 준비 없는 유학, 현지
에 서의 관동한 소비행태
나 엉청난 시행착오들은
언제 까지나 방관하여야 할
까?